

세종-세종시지방시대위 소통·협력을 이어간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일 세종시 지방시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2023년 10월 발족한 세종시 제1기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과제와 연계한 세종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최민호 시장과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출범 이후 2년간 ▲세종시 맞춤형 지방시대 전략 마련 ▲중앙-지방 협력 모델 발굴 ▲지역 혁신 과제 제안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 미래전략 사업육성과 청년·대학 정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지정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주요성과 및 개선 사항, 새 정부 지방시대 주요 정책, 국정과제와 관련한 세종시 현안 등을 설명한 후 위원 간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채봉 기자

충남도 사회복지 종사자 위한 지원 아끼지 않는다

충남도는 11일 제26회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도와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회복지주간(9월 7일부터 일주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정기 충남 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 전달식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제19회 충남사회복지대상 시상 등 순으로 진행했다.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사회복지협의회가 마련한 것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공자 표창은 홍성군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김대진 주무관,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임흥민 수석부회장 등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충남사회복지대상은 금강종합사회복지관과 남양유업 천안신공장 단체 2곳과 논산정신요양원 김덕래 대표이사 등 개인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지사는 "복지서비스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복지계열 종사자 분들의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도 여러분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충남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충청남도, 대한체육회·도체육회와 업무 협약 체결...성공 개최 '맞손'



충남도가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도내에서 13년 만에 전국체전을 개최한다. 도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대한체육회, 도체육회와 함께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업무 협약식'을 열고,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영범 도체육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간담회, 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2029년 전국체육대회, 2030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03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경기가장 시설 개·보수 등 대회 준비에 협력한다.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도는 지난 2월 도체육회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한체육회는 7월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예비 심사와 8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충남을 개최지로 확정했다. 제110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2029년 10월 중 7일간 도내 15개 시군 전역에서 열리며, 전국에서 3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주 개최지는 2012년 도청이 대전에서 이전하면서 도내 새로운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홍성군이다. 도는 도내 15개 시군 및 체육회와 협력해 경기장, 숙박, 교통 등 시설을 개선·보완하고 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방침이며, 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특색 있는 개·폐회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 시 개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다음 해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해야 해 도내에서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3년간 5개의 전국종합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수천억 원 규모의 지역 생산유발효과가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번 대회를 전국 최초로 군지역에서 개최해 전국최초의 새 지평을 열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답게 친환경 대회로 운영해 대한민국의 스포츠대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시 첫 국가사적 지정 '한솔동 고분군'

11일 관보 고시...사적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으로 역사관광자원화 추진

세종시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위치한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세종시 최초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1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한솔동 고분군이 지정 고시되면서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솔동 고분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과정에서 발굴된 백제시대(5세기) 고분군으로, 나성동 도시유적(거주도시)과 나성동 토성(방어시설)을 축조한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이다. 시는 이번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단순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 위치한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되면 향후 유적 정비와 복원, 관람편의 시설 정비 등에 국가유산청 국비 70%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국가 사적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해 2026년부터 한솔동 고분군의 단계·연차별 정비·활용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안내시설, 고분·보호각 정비, 홍보관 조성 등 단계적으로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산 교육·활용사업을 통해 지역 학교와 연계한 역사교육·체험의 현장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분 보호각 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등 시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솔동 고분군과 독락정 등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한 '국가유산 야행(夜行)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주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우리시는 한솔동 고분군을 역사·

교육의 중심지로 홍보하고 국가사적에 걸맞은 관람환경을 조성해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와 국가유산청은 오는 11월 1일 한솔동 백제문화축제에서 '세종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글과 양조문화가 융합된 야간축제 13일 '2025 세종 한글 술술축제가' 조차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현재 조차원 1927아트센터 등에서 성황리에 운영 중인 한글 프레 비엔날레와 연계·진행돼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차원 지역의 젊은 스타트업으로 주목받는 공사사양조의 '세종소주'와 ㈜사일로 '세종글락거리' 등 시을 행사 열려 다양한 지역술을 맛볼 수 있다.

이채봉 기자

충부권 MICE '청주오스코' 개관식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청주오스코' 첫 걸음

충북도는 9월 11일(목)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오스코의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행사는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오스코 건립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오프닝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청주오스코는 충북의 신성장동력산업이 집중한 오송1·2산단의 우수한 생산인프라와 MICE 산업을 연계하여 B2B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됐다.

2018년 전시관 건립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해 금년도 3월 준공하고 4월부터 종합시운전과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청주오스코는 총 건립비가 2,318억 원에 달하며, 10,031㎡ 규모의 초대형 전시실과 2,08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비롯한 총 3,730석 규모의 회의 시설과 미술관, 상설전시장을 갖췄다.

이는 전국의 컨벤션시설 중 7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대형팀 원수를 활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 사업도 눈길을 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충청 최초로 대형건축물 냉난방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도입하여 건축물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3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코막힐드, 충북에비비페어 등 초대형 전시가 개최됐고, 배터리 인사이트 컨퍼런스 등 전문학술행사 및 정부 유관기관의 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며 8월까지 누적 방문객 15만 명을 달성했다. 9월 정식 개관 이후 연말까지 2025 오송화장품비즈니스엑스포,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등 대단위 전시박람회와 기획전시, 각종 문화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으로 도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청주오스코는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해



대전시는 2025년 하반기 산하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83명을 선발하는 통합채용을 추진한다.

이번 채용은 지원자의 편의를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통합채용에는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청년내일재단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채용 인원은 일반직 41명, 공무원직 42명 등 총 83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은 공개경쟁 18명, 경력경쟁 23명이며, 공무원직은 공개경쟁 15명, 경력경쟁 27명 등으로 구분된다.

원서 접수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대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자는 1인 1기관 1분야에만 지

원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11월 8일 예정)과 2차 서류전형·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과목에 대해 대전시가 주관해 통합 실시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기관별 전형 일정에 따라 개별 시행된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통합채용에서 12개 기관, 102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도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채용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는 ▲필기시험 및 채용 전반은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각 공공기관, 기타사항은 대전시 예산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12일부터 광역급행버스 M1 노선이 은하수네거리 정류장에 양방향으로 추가 정차한다.

이채봉 기자

Clean Water

더 깨끗하게, 더 맑게!

수자원 회복을 위한 삼성전자 반도체의 노력

하루에 약 40,000t 방류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 PLATINUM CERTIFIED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 선언!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최고 등급 Platinum 인증도 취득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자연에서 가져오는 물의 양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취수량 증가 제로화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한 용수를 지속적으로 재이용하고, 사용한 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기 위해 총 3단계의 폐수 처리 과정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는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 평택캠퍼스 등이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반도체는 정부, 지역사회, 관련업계 등과 수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수자원 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수달이 돌아왔다! 오산천 수생태계 복원에 힘쓰는 삼성전자 반도체

수생태계가 악화되던 오산천에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수생태계가 건강하고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과거 오산천은 건천화로 인해 생태계가 악화되고 악취도 났었다. 오산천 상류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는 2007년부터 오산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용수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하루에 약 4만 톤 정도의 물을 방류한 것이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수질 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고, 토종 물고기를 방류하는 등 꾸준히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